

서울시, 비대면 시대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온라인 토론

11월 3일(화) 오후 2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워크숍 디지털 공존 편 개최

서울시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비대면의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 확산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의 현실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른 디지털 소외 해소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무인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이러한 변화 속에 노인·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남길우 수석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디지털 격차의 현실과 해결 방안 등에 발표할 예정이다. 남길우 수석연구원의 발표 후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김필순 노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각각 어르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실제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

책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토론 회로 진행된다. 디지털 소외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유튜브(https://youtu.be/7BWspMtc05Q)를 통해 생중계되어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워크숍 종료 후에도 11월 1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들의 의견들은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디지털 생활이 확산되는 시대에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확산되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태일을 기억하는 시간' 제8회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

상생선언, 노동강연, 영화상영, 전태일 따라걷기 등으로 진행

서대문구는 이달 13일 전태일 50주기를 앞두고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대문구전태일50주기 기념사업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전태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주제로 제8회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5일 오후 2시에는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함께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노동자와 임주민의 상생선언 노동 강연 '당사자의 나의 노동이야기' 등이 진행된다.

5일과 6일 저녁 7시에는 CGV 신촌아트레온에서 '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와 '런던 프라이드'를 상영한다.

특히 '파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미개봉작으로 2020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

다. 7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7일 오전 10시부터는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동상, 전태일다리, 명보다방 등 전태일과 관련된 지역을 탐방하며 해설을 듣는 '전태일 따라 걷기'가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조에 최대 5명씩 총 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전태일 평전 이어읽기'는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전태일 평전'을 서대문구민 200여명이 1페이지씩 나누어 읽고 녹음해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우상호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도 녹음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문제의식을 넓히기 위해 '임계장 이야기' 독후감 공모도 실시된다. 이들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때 만화영화 '태일이' 후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영화는 내년 2월 개봉 예정으로 후원자 이름은 엔딩 크레디트에 오른다.

조상순기자

서울시, 도로로 단절 한강~암사선사유적지 녹지길로 연결... '22년 개통

올림픽대로 4차선 도로 지하화, 상부엔 100m 길이 4,800㎡ 규모 생태공원 '암사초록길'

서울시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과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을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22년 말 개통 목표다.시는 광나루 한강공원과 서울 암사동 유적 사이의 올림픽대로 왕복 4차선 구간의 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엔 길이 100m, 폭 50m, 4,800㎡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300억원(시 260억원, 구 40억원)이 투입된다.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이 더 편리해지고, 암사역사공원, 선사이야기길, 서울 암사동 유적,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이 일대의 역사·문화·생태 공간을 연결하는 녹지축도 완성된다. 지역 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나들목'을 거쳐야만 한강까지 갈 수 있었다.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수렵 채집이 활발했던 신석기 시대 역사성

도 회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13년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했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시는 '11년 2월 암사초록길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12년 자체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재정적 부담 및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13년에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시는 공법개선, 일부사업 축소 등을 통해 당초 사업비에서 약 41억 원을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했다. 서울연구원을 통해 강동구가 시행한 서울 암사동 유적 주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검증하는 등 사업효과, 공공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추진을 결정했다.

또 '19년 강동구가 추진했던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의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에 약 10만 여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지



지와 공감을 얻었다. 시는 연말까지 지장물을 이설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내년엔 올림픽대로의 김포방향, 하남방향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시행한다. '22년엔 암사초록길 상부에 소나무, 조팝나무, 개나리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고, 부대공사를 진행한다. 신유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장은 "암사초록길'이 열리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인근 지역과 서울 암사동 유적이 한강과 연결돼 시민의 생활권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 역사성 회복으로 지역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Poster for the 8th Seodaemun Labor Rights Culture Festival. It features a portrait of Jeon Taeyul and lists various activities: 11.5 (Wed) Opening Ceremony, 11.5-6 (Wed-Fri) Film Screening, 11.7 (Sat) Jeon Taeyul Memorial Walk, and other programs like 'Remembering Jeon Taeyul' and 'Imgyeongjang Story'.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Official Certification of Gwangmyeong as a Fair Trade City). It includes a 'CERTIFIED' stamp and a list of benefits for fair trade cities.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보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건강한 일자리도 만드는 광명형 그린뉴딜을 시작합니다 (Starting Gwangmyeong-style Green New Deal to save the planet and create healthy jobs). It features a map of Gwangmyeong and lists various green new deal initiatives like energy efficiency, clean energy, and green buildings.

허성무 창원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도당 위원장에 건의 쏟아내

30일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경남도 내 4개 시·군 지자체장과 정책간담회 가져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지역 현안 건의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호 국회의원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등 4개 시장·군수가 경상남도 지역 상생발전과 각 지역의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참석했다. 허 시장은 간담회에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재검토 창원국가산단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등 참석 지자체와 관련된 4건의 창원시 시정현안을 공유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경남도에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경남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의 불확실성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으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글로벌 공급과 수요망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해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며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덧붙여 허 시장은 바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임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 동력으로서 조선업이 진해구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에서 지원기준에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해 상위, 중위, 하위 지역으로 재설정한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경남도내 개편 대상 지역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등 5개 도시이다. 허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투자마저 중앙 집중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구분 개편 기준으로 균형발전지표 적용이 적합한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국가산단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오는 11월 한국재료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창원시도 첨단소재산업 도시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면서 창원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계 메카로 떠오를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유치되면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끈 산업 역사,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진화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324km 명품 워터프론트 보유 등 창원시가 가진 독창적인 매력에 반영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담대한 포부를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창원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을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장이 함께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창원시의 지역발전과 창원 시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몽호/기자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0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 날 체육대회 행사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지자체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종목 및 구 지회별 선수수를 축소해 선수단, 내빈,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한마음 체육대회는 코로나 19로 작년보다 축소되어 미니파크골프, 한궁, 휠체어달리기로 예전에 비해 축소되어 대회가 진행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동안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신 선수단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또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화합, 건강 도모,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최광수/기자

합천군의회,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멤버류 피해보상협의 부진하고 취소장 계획 취소되지 않아 지속적 대응 필요

합천군의회는 30일 오전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특히 지난 8월 18일 구성해 활동해 온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11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연장 사유에서 군의회는 "지금까지 특위 활동 결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환경부 주관 조사위원회에 해당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사가 지연되고 보상 협의의 등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은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등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상수원 수량실태 파악 취소장 개발에 따른 예상 문제점 조사 지역주민 대상 취소장 설치반대 서명운동 지속 추진과 홍보 광역취수장 설치 지역 현장조사 정부부처 및 국회 특위구성 요구 댐 방류피해 국민청원 동참 홍보 확대 등 취소장 설치계획이 철회되고 댐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송인용/기자



장현국 의장, 30일 '2020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시흥시청 늪내홀에서 열린 '2020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김종배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배공만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 김경민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대표 및 경기지역 18개 시 공정무역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의 사회적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 더 큰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정무역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폭넓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란 지난 1997년부터 유럽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14일 일정의 캠페인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 두레생협이 공동 주관한 이



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비정부 기구 등을 주축으로 한 공정무역 제품판매, 강연, 캠페인 등으로 꾸러지며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 간 도내 18개 시에서 진행된다.

박상찬/기자

Advertisement for the Korea Press Foundation with the slogan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Wounds cannot be deleted). The ad features a hand holding a pen over a document with a large 'X' over a word, symbolizing the permanence of harm.

11월 1~15일 '동백상회'에서는 모든제품이 반값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동백상회' 개막

부산시는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동백상회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식은 부산에서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동백상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행사 기간 중 모든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적인 '반값세일'을 진행한다.

또한, 매장 및 제품구매 인증사진 촬영 후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면 커피 쿠폰 및 무선이어폰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동백상회'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 부산우수제품소프 매장 및 부산관광기념품점을 통합한 브랜드로서 부산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동백상회는 부산형 O2O 정책에 따라 내년 3월 오픈 예정인 공공 모바일마켓의 온라인 동백상회와 연계 판매를 위한 교두보 역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제품 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판매공간 역할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향후 매장 외부에 기업 홍보 및 제품설명 데이터가 내장된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지역기업 이미지 향상도 도모한다.

동백상회 '105호'는 광고를 통해 접수된 90여 개 기업 중 일정심사를 통해 33개 기업의 200여 개 제품으로 구성됐고 '106호'는 부산관광기념품 10선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의 제품을 선보인다. 입점 제품은 소비재 위주의 부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 기업들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입점 기회와 20% 내외의 낮은 판매수수료율과 인테리어 및 판매지원 지원 등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덜 기회를 얻게 된다. 부산시는 입점 기업 제품의 판매성과 향상을 위해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의 대형 유통채널 상품개발자를 초청해 상품 품평회와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상품력과 시장성이 우수한 제품은 국내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입점한 33개사 중 14개사의 제품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하는 부산우수제품 온라인 판매전을 통해 11월 한 달간 위메프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에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 부산경제진흥원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기는 광고를 통해 입점 기업 모집을 완료했으며 내년 4월부터의 2기 모집은 판로지원 취지에 부합하고 잘 팔릴 수 있는 지역 우수제품 소싱을 위해 관계기관

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시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백상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외 유통망 진출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유통시장의 대기업 과점화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앞으로 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전남도, 30일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제막

김영록 지사 "선열들의 의지 본받아
오늘의 위기 극복" 다짐

'독립비상의 꿈'으로 전남 출신 애국지사들의 진정한 광복을 염원하는 비상의 꿈을 담았다. 특히 날개를 펴고 비상한 새의 형상을 통해 불굴의 독립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전남도민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기념탑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각 분야별 독립운동가 7인의 독립열사상과 함께 전남 출신 독립유공자 1천 281명의 명단을 새긴 기역의 열주 벽이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세운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 천년을 향해 더욱 담대한 걸음을 내딛기 위함이다"며 "전라남도는 선열들의 용기와 의지를 본받아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200만 도민 모두와 함께 새천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영양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현장지원단 간담회 및 현장방문 진행

경북 영양군은 2018년부터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내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2020년 10. 29. 현장지원단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되는 사업이다.

현장지원단은 선도농가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에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및 코칭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농들은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태풍,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새로운 농업구조개선 시도에 대한 인프라 부족, 각종 보조사업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선도농가 및 전문가들은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생산·유통 및 품질관리 등 농업·농촌 분야의 전반적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코칭했으며 또한, 영양군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청년농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해 각종 영농정보와 기술 등을 상호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간담회와 현장방문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로 의논하고 협력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

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 농업재해보험지원 등 청년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영양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군산시민문화회관 GRAND DIT FESTA 개최

전시, 공연 등 수동적 공간에서 탈피,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실험

군산시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군산시민문화회관 옥상 등 야외공간에서 요가, 스케이트보드 강습 등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 전시 등 시민과 관객들이 수동적 주체였던 기존 공간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실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운영·리모델링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탁해 시행중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한정된 기간이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폭넓은 실험을 위해 정적 활동인 요가수업에서부터 동적 활동인 스케이트보드 강습, 소규모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난 10월 공개 모집한 3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임시 스케이트보드 파크와 야외 영화 스크린 등을 함께 만들어보는 DIT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 지역 사회와 공간운영자,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향후 운영자 선정 시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 스케이트보드 피날레 공연,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K-POP 학과 공연 등을 기획해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한 오픈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했다.이기간 도시재생과정은 '군산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 특화된 거점시설로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시설조성 후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갖춘 다양한 민간을 운영에 참여

시키고 그 수익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민간협력형프로세스를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서의 추억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자연그대로 키운 소안도 노지 감귤 수확, 올해 120톤 생산

소안도 감귤 작목반 전체 GAP 인증 획득, 맛과 안전성까지 확보

완도군 소안면에서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노지 감귤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수확을 하고 올해 생산량은 120톤으로 예상된다.

소안도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노지 감귤 작목반을 결성했으며 현재 70농가, 25ha에서 노지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소안도 노지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다.

또한 과실의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돼 저장 기간이 길다.

특히 지난 10월 초에는 소안도 감귤 작목반 전체가 GAP 인증을 획득해 감귤의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한 감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감귤 명품화 사업을 통해 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지 감귤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완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살려 아열대 작물



을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명품화에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광양중앙도서관, 청소년 웹툰 프로그램 운영

광양중앙도서관, 청소년 웹툰 프로그램 운영

광양중앙도서관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과정'은 청소년들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스토리와 콘티 제작, 스케치, 펜선 그리기, 채색하기, 대사와 효과 넣기 등의 실습을 통해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 2회,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과정은 순천 글로벌 웹툰센터 이해주 작가가 강사로 나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연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강의 특성상 강사와 수강생 개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관내 중고등학생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1월 4일 오후 4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광양중앙도서관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전라남도가 공모한 '2020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중앙도서관이 선정됐다"며 "이번 웹툰 과정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일시	20.11.18(수)-12.12(목) 주 2회 총 8회 → 16:30-18:30 / 14:00-16:00
대상	중고등 학생 10명
장소	중앙도서관 2층 창작실
강사	이해주(순천글로벌웹툰센터 소속)
모집	20. 11. 4 (수) 16:00-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화
내용	스마트폰으로 웹툰 그리기 -레이아웃, 콘티, 스토리, 캐릭터
문의	☎ 797-3866

가을에 빠지다 ♥ 목포에 빠지다 'fall in 목포' 공연여행

한국공연관광협회 무료공연. 코로나19 힘든 시민 위로차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짝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11월 6일 오후 5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fall in 목포' 공연 여행은 fall의 의미인 가을, 빠지다 라는 단어를 살려 '가을에 빠지다 ♥ 목포에 빠지다'라는 컨셉을 담았다. 시가 이번 공연여행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선물하며 지역경제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공연관광협회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한국공연관광협회는 현재 "힘내라 대한민국 공연여행"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황주, 상하이 등에서 k-년버벌 페스티벌 공연,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고 문체부 후원을 받아 국내 순회 특별공연을 하고 있는 고품격 공연단체이다. 이 단체가 이번에 목포에서 펼칠 무대는 뮤지컬 2편, 비언어로 진행되는 년버벌 4편 등 총 6개 공연이다.

그리고 목포시립합창단원들이 관

객들과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를 마무리한다. 시가 이런 수준 높은 공연단을 무료공연으로 연결시키게 된 것은 공연협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당초 10월에 개최 계획이었던 목포항구축제가 취소되자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목포항구축제 연계행사로 소규모 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해 이 협회 측과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되자 시는 공연단을 섭외했다. 행사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출입자명부 작성, 평화광장 무대에는 4㎡당 1명씩 의자를 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면서 야외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현실과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도 강구했다.

인터넷 관객을 모집해 무대 화면



에 송출시키면서 사회자가 중간중간 인터넷 관객과 대화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것. 김중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든 역경에 처해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이

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지치고 힘든 생활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광명시, '노래하는 분수' 경륜장 광장에 이색 볼거리 생겨

폭 5m, 길이 35m의 바닥분수 조성,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추는 분수

광명시가 경륜장 광장에 '노래하는 분수' 설치 공사를 마치고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임오경 국회의원, 정대은 경기도의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9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5m, 길이 35m의 바닥분수를 조성했다. 7월 공사를 마치고 가동하려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으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닥분수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음악과 파스텔톤의 조명을 맞춰 다양한 분수쇼를 보여줄 계획이며 낮에는 아이들의 물 놀이터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래하는 분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도요금과 전기사용료 등을 부담하고 광명시가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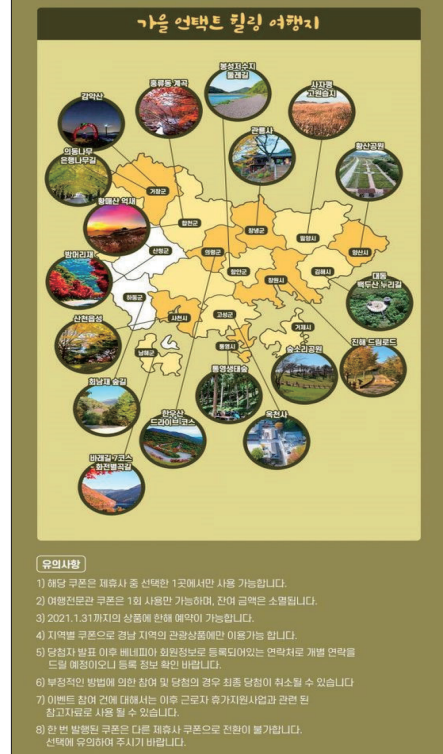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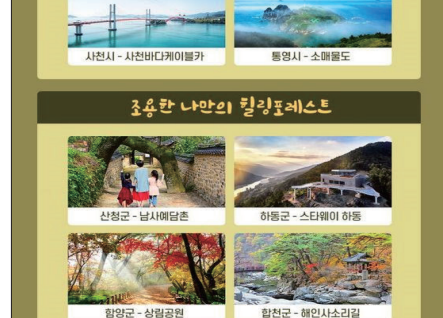
"노래하는 분수"라고 분수대 이름을 직접 지었는데,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분수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폐달광장

에서 많은 시민이 분수쇼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남에서 쉬 타곤 놀자!	1,377개 관광 상품	42개 관광 상품
1,570개 관광 상품	8개 관광 상품	8개 관광 상품



이용섭 시장, AI기반 광주형 3대 뉴딜 지원 건의

이 시장,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그린·휴먼 광주형 3대 뉴딜 지원 건의

광주광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주형 3대 뉴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30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개최한 첫 전국 순회 회의로 이날 당 대표, 김종민·염태영·신동근·양향자·박홍배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짜는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 호응해 광주형 3대 뉴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형 3대 뉴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150만 광주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점이 다른 지역의 뉴딜정책들과 다르다"고 광주형 뉴딜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인공



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 처리 특별법 마련'과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파크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대전환하는 그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은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인 광주형 자동차공장 건설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과 '빛그린산단 등 광주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첨단기술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더불어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된 '5·18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와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화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이날 당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방문해 약속했던 공공화 이전 지원법의 빠른 처리를 국회 국방위원장과 간사께 부탁했고, 5·18 왜곡처벌과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욕적 계획, 두 가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빛그린산단에 건설중인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자동차공장을 둘러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혁윤기자

김미경의 코로나 생존법...영등포 구민아카데미 생중계

11월 4일 오후 2시 유튜브 '스튜디오 티움'에서 실시간 생중계

영등포구가 새달 4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티움'에서 제2회 영등포 구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김미경 강사는 KBS '여유만만', '아침마당'을 비롯해 tvN '어쩌다 어른', '프리미엄 특강쇼'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꿈, 경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많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멈춘 일상을 다시 일으며 세우는 법에 대한 생존 솔루션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아카데미 강연은 11월 4일 영등포구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티움'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인다.

'스튜디오 티움' 채널에 접속한 주민들은 아카데미를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신청하씨도 아카데미 참여는 가능하지만, 신청자들에게는 아카데미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 전날 및 당일애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수준 높은 명사특강으로 주민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제2회 영등포 구민아카데미

코로나 이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솔루션

김미경 (김미경TV다큐)

2020. 11. 4. (수) 오후 2시

YouTube '스튜디오티움' 라이브 스트리밍

본방송! 방송시간 외 다시보기 없습니다.

감사아래
TV출연: KBS여유만만, KBS아침마당, KBS뉴스라인, tvN 김미경쇼,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 MBC 희망특강파랑새, MBN 속속이소 등 다수 출연

사진접수
접수기간: 2020. 9. 28. (월) ~ 11. 3. (화)
1인당 1회 접수
영등포구청 > 통합예약 > 평생교육 > 강좌신청
2건이상 접수
문의 02-2670-7565, 7566
신청해주시는분께 전화로 강의 신청 완료 안내드립니다.

검색방법
YouTube 검색창에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STUDIO TIUM
구독

경남, 가을철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집중

29일 시군 관광회의 영상회의 개최, 방역 수용태세 추진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강화된 방역유지와 관광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일 도·시군 관광과장 및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관광과장 영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광사업 현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광사업 관련 방역 수용태세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21일(토)까지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 방역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대책으로 주요 관광지내 관광객 교차 접촉 차단을 위해 일방향 관광안내 도우미 61명과 관광시설 안전관광 모니터단 36명을 운영하며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 28개소에 71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운영한다.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시설물 소독,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방역활동을 기반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순차적으로 소비할인권도 재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및 숙박·여행 할인권 제공 사

업을 10월 30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우선 정부 '국내여행 할인상품 지원 사업'과 연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경남 여행상품에 대해 정부지원금 최대 6만원(20%)에 도비 최대 3만원(10%)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된 여행상품은 전국 총 1,112개로 그 중 경남상품은 76개(약6.8%)이다. 해당 여행상품은 10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투어비스 누리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도비 추가 지원액은 총 1억원으로 예산소진 시 종료된다.

이어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총 3,785명에게 2억원의 경남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휴가샵)에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쿠폰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제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할인권 재개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나, 이를 통해 관광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오산시특허 'GPS빅데이터 영치시스템' 출격 CCTV 연 계해 체납차량 168대 적발 합동영치

오산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간 오산플랫폼에서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변호관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변호관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 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 CCTV를 연계해 합동 영치했다.

특히 이번 합동 영치는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 명의차

량에 대한 변호관 영치활동과 체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를 전개하면서 지속적인 합동영치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단속에는 GPS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 168대를 적발하고 그중 27대를 영치해 3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변호관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11월 5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기능 중단

안성시는 발생생편신고의 유사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혼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오는 11월 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5대 구역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그 곳 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비위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지금까지 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그 외 인도 및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편신고를 운영해 왔다.

시는 이번에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지난 23일부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및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추가됐고 11월 5일부터는 생활불편신고 앱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신문고 앱만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활성화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

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 0~오후 4시 50µg/m³ 초과 예상 총남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µg/m³ 초과 예상 익일 50µg/m³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홍성군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주시, 체납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 변호관 영치 실시

인근 지자체와 합동 변호관 영치로 체납세 일소

경주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28일~30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변호관 영치는 징수와 보유번호판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4대를 운영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변호관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속 체납차량



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징수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숨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담담자와 상의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들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단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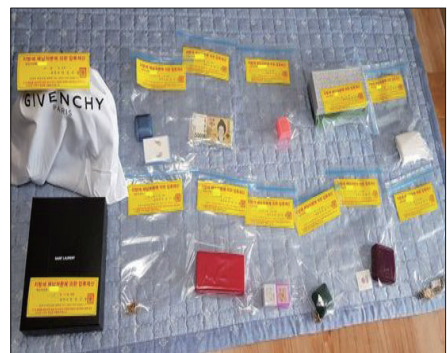
광역징수기동반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천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고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부 조사

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가방을 열어 보자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 명의차량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임을 확인하고 변호관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라북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며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

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해 집중 수색하고 납부 능력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납부의식을 고취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봉화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봉화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실시간 변호관 영치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압류예고 및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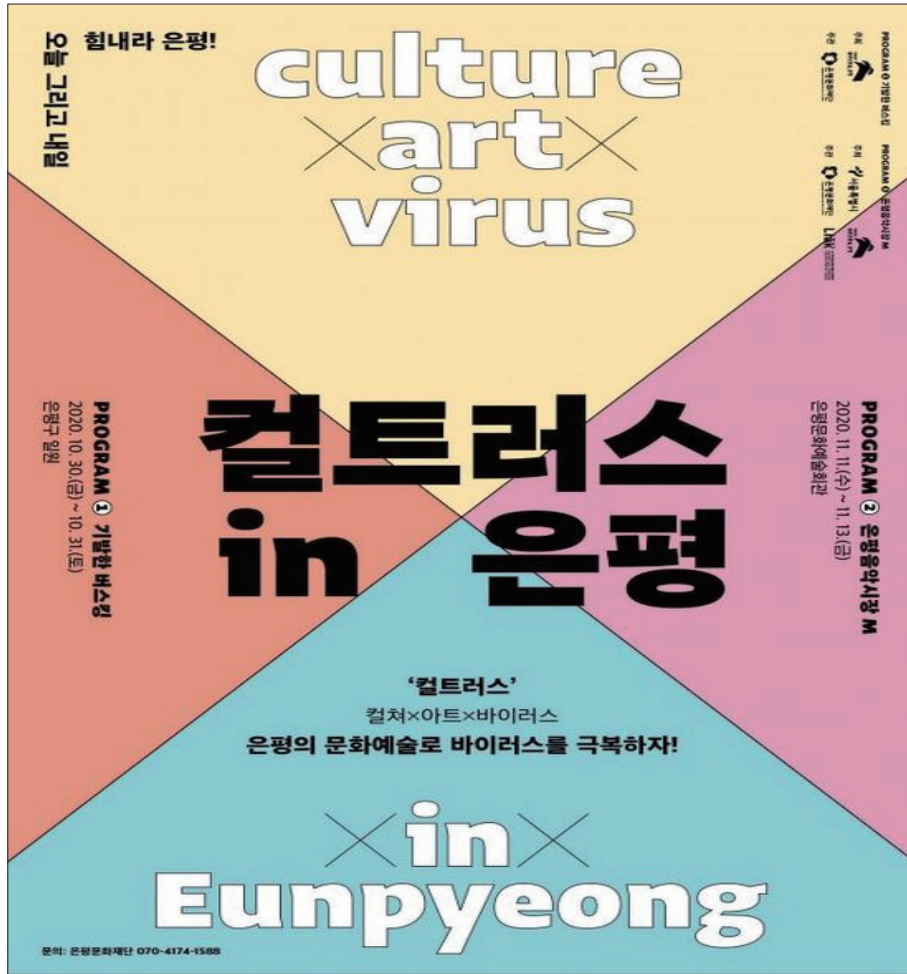
은평문화재단, 문화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컬트러스 In 은평' 개최

'기발한 버스킹'과 '은평음악시장 M'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 구성

은평문화재단이 행복 문화바이러스 전파를 위한 '컬트러스 In 은평'을 3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평구청에서 추진하는 '힘내라 은평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은평문화재단이 주관하면서 기획된 행사로 버스킹 공연 외에 코로나19로 지친 은평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은평음악시장 M'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해 '컬트러스 In 은평'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컬트러스 In 은평'은 '컬처·아트·바이러스'의 합성어로 은평의 문화예술로 바이러스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0월엔 기발한 버스킹 프로그램이 11월엔 은평음악시장 M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잠했던 은평구의 문화예술을 현장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모임 등이 제한되어 은평구의 축제개최가 불가하면서 은평주민들은 많은 아쉬움을 보였으며 은평문화재단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존의 축제 대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다가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 '기발한 버스킹'은 은평구의 전통 과발 제도의 기발에서 착안된 명칭으로 은평구의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선보이는 공연형 프로그램이며 자체 선정할 일상 공간 5개소에서 전체 18개의 공연팀이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공연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연자와 관객의 거리·관객과 관객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현장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과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재단측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됐지만 문화예술을 통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버스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공연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안성시보건소 의료진 위한 '코로나19 극복기원 나눔' 이어져

안성시보건소 의료진을 위한 '코로나19 극복기원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 엔플라잉의 소속 가수 이승협과 팬클럽 엔피아는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안성시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량을 지원해 출근길 따뜻한 커피를 제공했다. 앞서 빙그레에서 아이스크림, 오리온에서 과자, 농심에서 생수와 컵라면, 종합복지센터에서 수제 쿠키, 축협에서 우유,

칠장사에서 컵케이크 등을 전달했고 이 외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물품과 간식 등이 기부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바쁘고 힘들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격려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및 선별진료 업무를 더 철저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부평구,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마련

부평구는 30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무나 배추 등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두 달간 구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11월과 12월에는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각 동별 지정판매소에서 20ℓ로 제작된 전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구는 김장쓰레기의 주배출 방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김장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방문수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외부에 장기간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전면 회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에 노곤이나 비닐 등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방법을 준수하고 김장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김장쓰레기

- 지푸라기, 노곤, 흙 등의 이물질 제거
- 잘게 썰어 부피 최소화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김장철기간(11월~12월)에만 한시적 판매, 사용
비율에 따라 봉투 수량 제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구매
- 다들어린 식재료 구매
- 절일배추와 같이 반가공 식품 구매

김장쓰레기의 감량 방법

- 옥파, 대파, 마늘 등의 뿌리나 겉질
- 흙 묻은 배추 겉잎 등은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Tip. 건조시킨 후 배출하세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채소류	옥파·대파·마늘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견과류 포함)	호두·도토리 등의 견과류 '박' 및 '껍질', 사과·배 등 '씨'와 '껍질'
육류	소·돼지 등의 '뼈'와 '갈' 및 '뼈'와 '갈'
어패류	조개·새우·전복·명게·굴 등 패류 '껍데기'
곡류	왕겨(벼의 껍질)
기타	계란 등 '껍데기', 각종 차류 '회통 티백', 한약재 '피꺼기'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위의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부평구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0332)509-6620-5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11월 테마특강 수강생 모집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기술, 나를 지키는 성범죄 예방법 특강 진행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안전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인 '청년 테마특강' 11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4일 강의 예정인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기술' 강의는 나를 보여주는 자기소개 스피치, 가슴에 와 닿는 말하기 기본 조건, 발표 불안 극복하고 진심을 전달하는 법 등의 내용으로 김세민 강사의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까지이다. 또한, 11월 24일 강의 예정인 '나를 지키는 성범죄 예방법' 강의는 성범죄자들의 특징과 성범죄 예방의 3가지 솔루션,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안병현 강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다. 특강 프로그램마다 1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로 방문·전화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청년발전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상찬기자

청년 테마특강 11월 수강생 모집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모집대상 만19세 ~ 39세 모든 청년

모집인원 프로그램마다 12명 (선착순, 관내 청년 우선선발)

강의장소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3, 2층)

접수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 의왕시청, 고시공고,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방문 신청

문의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031) 345-2717

<p>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기술</p> <p>모집기간 2020. 11. 2(월) ~ 11. 11(수)</p> <p>강의일정 2020. 11. 14(토) 14:00 ~ 16:00</p> <p>강사명 김세민 (오간지프로덕션 교육매니저, 강연코치 및 컨설턴트)</p> <p>강의내용 나를 보여주는 자기소개 스피치 기술에 외치는 말하기 기본 조건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진심을 전달하는 법 마음을 각인되는 스토리의 힘</p>	<p>나를 지키는 성범죄 예방법</p> <p>모집기간 2020. 11. 2(월) ~ 11. 20(금)</p> <p>강의일정 2020. 11. 24(화) 19:00 ~ 21:00</p> <p>강사명 안병현 (법무부 전주관립소 무도실무관, 특별범죄자 관리과 전사감독, 조선일보, 여성조선, 아우경제 등 인터뷰, 저서: 친밀한 성범죄자)</p> <p>강의내용 성범죄자들의 특징, 성범죄 예방의 3가지 솔루션,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p>
--	--

의왕청년발전소 소개

센터소개 | 의왕시청, 의왕시 경수대로 233, 2층

위 치 | 고천센터, 의왕시 경수대로 233, 2층

이동대상 | 만19세 ~ 39세 모든 청년

이동시간 | 평일 9시 ~ 21시, 토요일 9시 ~ 18시 (공휴일 휴무)

고천센터 공간소개

- 다목적공간 | 카페, 회의실, 자유로운 휴식 공간
- 카페테리아 | 각종 음료와 간식을 즐기는 공간
- 스타디움1 | 독서, 책상이 비치된 1인 공부 공간
- 스타디움2 | 자유롭게 독서와 스타디움을 할 수 있는 공간
- 회의실 | 교육, 모의연설,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 음악실 | 음악, 노래,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www.iwang.go.kr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김

전복

대파

울금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서울시, 29일 전국 최초 '대형상수도관 세척기술' 발굴 경진대회

오프닝행사 종료 후 30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6개 구간서

공법별 시범 세척 실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질사고로 상수도 관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가 수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관로에 대한 세척 의무화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 기술상 물세척이 어려운 구경 400mm 이상 대형관에 대한 마땅한 세척 방법 및 규정이 없어 전국의 상수도사업자가 고심하던 차였다.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구경 400mm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 세척 기술을 실증하고 겨루는 "서울시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를 오는 29일~30일 이틀간 서울시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현장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기업의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등 상수도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육성하기 위한 '상수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 추진 중이며 이번 경진대회도 그 일환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관 세척 공법을 발굴하고 우수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400mm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 세척 기술을 보유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경진대회(㈜대연테크, 삼성하이드로)와 ㈜세니팡, ㈜케이엠에스(㈜크린텍 등 6개 업체)가 최종 참가한다. 본부는 본격적인 경진대회에 앞서 29일 오후 2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앞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오프닝 행사를 연다. 경진대회 참여 업체별 장비 전시 및 시연, 공법별 설명 및 홍보가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종료 후에는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범 세척이 실시된다.

오프닝 행사에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부·수자원공사·상수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감염병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경진대회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세척 의무화에 발맞춰 전국 상수도사업자의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진대회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전역에서 상수관 시범 세척이 가능한 11개 구간을 선정했다. 대상 구간은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부설돼 40여년이 경과된 400mm 이상의 대

형관으로 관종은 모두 2세대 강관인 덕타일주철관이다.

이중 참가업체의 희망구간을 우선 고려해 최종 6개 구간을 선정했고 29일~30일 이틀 중 정해진 작업시간에 각 업체별 공법을 적용해 현장에서의 시범 세척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 세척 구간은 구로구 고척동, 강서구 가양동, 중랑구 중화동, 노원구 중계동, 마포구 아현동, 관악구 신림동 등이다. 경연건설(㈜)은 로봇을 통해 관로 내부를 세척한 후 나선형 스크류로 퇴적물을 제거한다.

㈜대연테크는 고압펌프를 이용한 폴리에틸렌 브러시와 패드를 이용한다. 삼성하이드로(㈜)는 추진 노즐과 청소 노즐을 이용해 고압수로 세척을 실시한다. ㈜세니팡은 관로에 물을 뺀 후 고압의 질소 기체를 투입해 마찰력을 활용한다.

㈜케이엠에스는 기존 세척수와 회전 압축공기의 마찰력을 이용한 방법이다. ㈜크린텍은 고압수와 장비 앞쪽의 고리체인 및 브러시를 이용해 세척하는 공법이다. 실제 상수도 현장에서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경진대회 모든 구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자가 입회해 현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척과 세척수 처리 이외에 관세척을 위한 터파기, 단수, 관 절단 등 사전 준비 작업과 복구 및 통수 과정은 모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병물아리수와 급수팩, 급수차 등을 미리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했다. 경진대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과 세척 전·후 관내부 등을 CCTV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고려해 평가한다.

상수도분야의 전문가 9인이 평가를 진행하며 세척시간, 청소 결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세척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세척 시간, 세척 결과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집진물 및 세척수 처리 방법의 적정성, 현장 운영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실증된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상수도 현장에서의 시범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송·배수관 세척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관세척 의무

서울시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

일시 2020. 10. 29(목) 14시~18시
경소 서울서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노원구 중계동 508-1)

Opening 행사 10.29.(목) 14:00 - 14:30 개최식, 장비 전시 및 시연 / 세척 동영상 상영 등

현장 세척 시연(1일) 10.29.(목) 15:00 - 21:00 삼성하이드로 | 추진 노즐과 청소 노즐을 이용한 고압수 세척
22:00 - 06:00 대연테크 | 고압펌프를 이용한 PE 브러시와 패드 이용 세척
22:00 - 06:00 KMS | 기존 세척수와 회전 압축공기의 마찰력 이용 세척

현장 세척 시연(2일) 10.30.(금) 13:00 - 19:00 크린텍 | 고압수와 고리체인 및 브러시 이용 세척
13:00 - 19:00 세니팡 | 고압질소 기체를 투입해 마찰력 활용 세척
13:00 - 19:00 경연건설 | 로봇 세척 후 나선형 스크류로 퇴적물 세척

건강하고 가치있는 선택, 아리수

화 이전인 2009년부터 관세척을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시 전체를 2,037개 소분목으로 구분하고 구경 350mm이하 관로에 대해 5년 주기로 세척을 시행하고 있다.

또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별 상수관 말단 161개소 대해서는 20~50일간의 주기적인 퇴수를 통해 세심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반면 400mm이상 대형관은 대규모 단수를 수반하고 일반 물세척의 한계 등 적정 공법이 부재해 세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로 이중화 작업 등 세척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대형관 세척을 위한 지점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

혔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공법을 발굴하고 관세척 관련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꼼꼼한 관망관리를 수행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경진대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우수 공법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에 전화 또는 이메일 이용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청년, 좀 더 맘 흘러도 괜찮아

동대문구,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주간행사 다채롭게 진행

동대문구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2일~8일 '2020 제1회 동대문구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청년주간행사는 '동대문구 청년의 뜬 뜬 뜬'을 주제로 청년, 좀 더 뜬 뜬도 괜찮아 청년, 뜬 뜬도 괜찮아 등 3가지 테마를 정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을 위로하고 청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 좀 더 뜬 뜬도 괜찮아' 테마로는 나 혼자 걷기 챌린지 청년 미래설계 현직자 취업 멘토링을 통해 정계현길, 낙산길을 걸으며 청년 건강을 돌보고 진로탐색을 모색한다. 청년 미래설계 현직자 취업 멘토링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구경 2층 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 구글, 아마존,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현직자의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좀 더 뜬 뜬도 괜찮아' 테마로는 시간 사진관 나만의 HOT 장소 챌린지 동대문 클래스 영상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을 공유한다. 동대문 클래스 영상 챌린지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1~3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해 서로의 개성 넘치는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공모 프로그램으로 공모 신청자 중 최종 10인을 선정해 자신의 영상 촬영 및 발표회를 진행한다. '청년, 뜬 뜬도 괜찮아' 테마는 월데이 클래스 일자리가 보이는 라디오 찾아가는 동청넷 특목 등을 통해 청년 문화를 체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찾아가는 동청넷 특목은 동대문구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을 알리는 자리로 2020년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정책 제안 과정과 활동을 공유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다음달 7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동청넷 특목 프로그램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다. 오프라인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댓글달기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0 제1회 동대문구 청년주간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과 동청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청넷 누리집에서는 사전 참여 신청도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동대문구 청년주간행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줄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해 더 같이 고민하고 청년과 소통하고 협업해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동대문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2020 제1회 동대문구 청년주간행사
뜸! 뜬! 뜬!

www.ddmyouth.net
2020. 11. 2. - 2020. 11. 8.

뜸 청년, 좀 더 "뜸" 흘러도 괜찮아!
뜬 청년, 좀 더 "뜬" 튀어도 괜찮아!

진로탐색: 청년 미래설계 현직자 취업 멘토링 11.02 14:00 - 17:00
청년문화: 청년 문화 체험 '월데이 클래스' 11.02 - 11.06
청년건강: 나 혼자 걷기 챌린지 11.02 - 11.08

뜸 청년, 좀 더 "뜸" 흘러도 괜찮아!
뜬 청년, 좀 더 "뜬" 튀어도 괜찮아!

시간 사진관 11.02 - 11.04
나만의 HOT 장소 챌린지 11.02 - 11.06
동대문 클래스 영상 챌린지 11.02 - 11.06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누리집, 동청넷 누리집, 동대문구청 안내센터, 동대문구청 홍보관, 동대문구청 방문 신청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 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www.designdahae.com

지역 정보화기반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김천시는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2025년까지 5년간의 정보화 계획으로 행정, 산업,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전 분야를 총 망라한 지역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계층, 연령,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학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시민 정보화교육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인당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연간 455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의 정보화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으로는 전산화계사, 그래픽스, 정보처리, 블로그 및 ucc 동영상 제작, 인터넷, ITQ 등이 있으며 정보 기술 습득 및 정보격차 해소, 자기능력 개발로 시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시민정보화교육 수요자는 461명으로 이 중 자격증 교육과정 356명중 123명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정보화강사를 배치해 1:1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소면, 어모면, 자산동, 양금동, 대신동, 지평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주민정보이용시설 6개소와 대한 노인회 김천시지회 등 총 7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지역정보화강사 7명을 배치하고 5월 6일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한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스마트김천 앱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부서별·업무별로 개별 운영하던 80종의 홈페이지를 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도입, 통합검색기능 강화 등으로 사용자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을 폐지하고 본인인증서비스를 도입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 되는 기술로 사용자의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장치의 화면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김천행복+앱을 새롭게 출시해 기존 스마트김천 앱 사용 시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계는 물론 새 소식, 채용공고 고시공고 등 시민이 자주 찾는 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될 때마다 알려주는 기능기능을 추가하고 직원검색 기능을 강화해 성명, 부서 행정전화번호중 하나로



검색하면 해당직원의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정관련 업무 처리에 편리함을 더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생활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비대면 사회에 효율적인 대민 행정업무 추진하고자 올해 말까지 '모바일 시민소통앱'을 구축한다. 모바일 시민소통앱은 읍면동 이·통장이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공문서 각종 전달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편리한 시정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마을 공지시스템'은 관리자가 마을회관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주민들도 전화로 편리하게 공지사항을 전달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 전달력이 월등히 향상됐다.

특히 수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반복 송출, 다시 듣기, 미수신자 확인 기능이 있어 지나간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어 나홀로 세대 관리에도 유용하다. 또한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산발예방 등을 문자로 발송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됐다. 현재 568 동리 25천여 세대와 이용 중에 있으며 읍면동 전체 5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은 이통장을 통해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에서는 시스템의 빠른 보급과 정착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달 동안 전체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통장 회의를 .이용해 스마트 마을공지시스템을 시연, 홍보했다. 앞으로 이통장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해피 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마트 마을공지시스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장소 103개소, 시내버스 3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운영하

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김천시가 손잡고 추진했다. 올해에도 버스 45대를 추가 설치하고 공공장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 와이파이'를 검색해 전용사이트에 접속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중계기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출입문 옆 창문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wifi@bus-노선번호'로 한번 설정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말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학습기반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사람, 차량 등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우선 선별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관제 운영방식의 시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요원 1인당 관제 CCTV 영상 수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2019년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되며 12월 사업자를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인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와 김천혁신도시 인프라 등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융합 구축했다. 국비 6억, 도비 1.8억, 시비 6억을 포함해 총 13억 8천만원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은 올해 8월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기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며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CCTV영상 정보 실시간 전달, 긴급구조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방범에 취약한 지역 해소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순차적으로 신규 설

치하거나 노후 CCTV 화질을 높이기 위한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설치와 노후 CCTV 교체 대수는 130여대로 향후 3년간 400여대가 연차적으로 설치·정비되어 범죄 및 안전대응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줄여 나아가는 예정이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되고 있는 CCTV는 1,650여대이다. 주정차단속, 재난하천감시, 산불감시, 불법쓰레기 CCTV연계 구축이 완료됐으며 지속 확충 중으로 향후 2,000여대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 등 사회계층 변화에 따라 개인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등 관제범위가 세밀하고 넓게 분포화 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김천시에서는 24시간 주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생활안전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등 친환경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녹색미래과학관으로 2014년 개관해 매년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 지역 과학인재육성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학관의 4D품동영상관은 직경 15m의 동형 스크린에 4D체험의자에 앉아 8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4D품동영상관으로 최신 영상장비 신규 도입으로 최고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한상상은 경북거점센터로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 ICT메이커, 3D 프린터 등 메이커 프로그램과 생활공방 등을 운영해 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 및 과학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개관 7년 차를 맞이하는 녹색미래과학관은 또 다른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0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첨단과학을 통해 지식전달을 넘어 창의적인 사고와 협동능력을 키워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융복합 전시관 구축을 목표로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전시관은 AR,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환경, 에너지, 과학, 경제, 사회, 문화 등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신나는 체험,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상, 두려움 없는 창작성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고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의 행복은 물론 안전과도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은 필수이다. 김천시민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소외 되지 않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영양군, 2022년도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 대비

제 1차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28일 오후 3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국과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이 발굴한 2022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은 51건에 총 사업비 1,046억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반딧불이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가 있는 선바위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26건에 539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영양 문화마을·서부리 새마을사업, 상원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토쿠지구 급경사

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영양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등 총 25건에 총사업비 507억원이다. 또한, 국도 31호선2차로 선형개량공사, 지방도 918호선 국지도 승격, 지방도 9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군 발전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국·도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부정책 동향 파악과 중앙부처·도청방문, 국회의원·도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금껏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노력을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참신한 신규사업 구상과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그대와 나의 슬기로운 척추생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척추분야 메디컬&아트콘서트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콘서트 시리즈 II - 그대와 나의 슬기로운 척추생활' 공연이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콘서트 시리즈'는 코로나19로 한층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전문 의료 지식을 지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선정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이다.

함께 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해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두 번째 공연으로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자 중장년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척추 질환의 원인 및 치료방법을 공연예술과 함께 전달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와 아트가 결합해 전문 의료진과 예술인이 협업해 진행하는 보기 드문 문화예술활동과 기획 프로그램이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척추 질환 증상을 지역연극단체 극단안동이 유니버스 단막연극으로 표현하고 지역 척추분야 전문의 정영선 안동성서병원 척추척추스프린터장 소장과 김중문 안동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의 전문 의료지식을 전달하며 토크와 타악 마라바 앙상블이 함께해 더욱 흥미진진한 공연이 될 것이다.

김영호기자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콘서트 II

MEDI & ART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척추분야 메디컬 & 아트 콘서트

그대와 나의 슬기로운 척추생활

2020. 11. 4. (수) 7:30 PM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주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주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티켓링크 1588-7890

관람료: 전석 5천원, 관람연령: 5세 이상, 문의: 054)840-3600, http://art.andong.go.kr

사천바다케이בל카의 아름다움을 전할 서포터즈 모집해요

경남 귀해초~바다와 섬 그리고 산을 잇는 사천바다케이בל카

SNS 서포터즈 3기 모집

모집기간: 2020년 11월 1일 - 11월 22일

활동기간: 2021년 1월 - 12월 (12개월)

모집대상: - 여행에 관심이 많고 사진, 동영상 촬영에 소질이 있는 분
- 개인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
* 2021년 상반기 사포터즈 공개 합격자는 180명

모집인원: 10명

활동혜택: - 교통비 및 활동비 지급 (월 30만 20만)
- 케이בל카 무료탑승 (본인 외 2명까지)
-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무료이용 (연중 1박에 한함)
- 사포터즈 활동 우수자 연말 상금 및 표창 (3명)

신청방법: 케이בל카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tek0129@scfmc.or.kr)

* 문의: 사천시관광진흥과 (055-831-7211)

오는 11월 1일~22일까지 SNS 서포터즈 3기 모집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천바다케이בל카의 아름다움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사천바다케이בל카 SNS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여행에 관심이 많고 개인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된 지원서는 서류심사와 전화면접 절차를 거쳐 12월 8일에 최종 합격자 10명을 발표한다. 합격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매월 정기 미션 달성 SNS 홍보 콘텐츠 제작·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즈를 위한 혜택으로는 위촉장과 함께 케이בל카 무료탑승,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무료이용, 그리고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시 때는 홍보활동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별도의 상금과 표창도 수여한다. 박태정 이사장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케이בל카를 널리 알리기 위해 SNS 서포터즈 모집에 나선다"며 "서포터즈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니 케이בל카에 관심 있고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바다케이בל카 SNS 서포터즈 3기 모집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촉식은 12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남영경기자

'2020 한·아세안 패션위크', 29일 부산 F1963에서 개막

대한민국 부산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펼치는 온라인 패션쇼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020 한·아세안 패션위크'를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영구 F1963에서 무관중·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패션위크'는 2001년부터 시작된 '프레타포르테 부산'에 이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권역으로 확장한 국내 유일 우리나라와 아세안 패션업계 대상 최대 행사다. 지난해 '한·아세안 패션위크'는 해당 국가 패션관계자와 시민이 다양한 패션쇼를 즐길 수 있도록 벅스코에서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무관중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했다.

총 3일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한·아세안 패션위크TV'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총 24개사 인기 패션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한·아세안 패션쇼', 부산지역 8개 대학 예비 신예 패션디자이너들의 '대학패션페스티벌 패션쇼'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션산업 환경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아세안 패션발전 디지털 화상포럼'을 열고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



한된 상황에서도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패션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패션 트렌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벤트'와 '실시간 채팅 참여 이벤트' 등 회원가입자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회원가입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자이너·모델·스텝으로 현장 스튜디오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기존 대면 방식의 정형화 된 패션쇼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패션 전문 행사인 한·아세안 패션위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학술심포지엄 '부산역사의 과학적 재발견' 개최

부산 소재 유적과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부산시 시립박물관은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학술심포지엄 '부산역사의 과학적 재발견'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해 집합행사 대신 부산시립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먼저, 본강연은 송의정 부산시립박물관장의 기조강연 '고고학과 과학의 시너지 - 통섭의 현장을 기대하며'를 시작으로 류춘길 한국지질환경연구소장의 '동삼동 패총의 자연환경' 김현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특별연구원의 '동물유체를 통해 본 동래패총과 동래인' 이광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의 '배산성 집수지 출토 유기물의 자연과학적 분석' 박정욱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연산동 고고고분군의 축조기술 분석'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이어서 정인도 한국문화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유병일 동서문화연구원 유적조사실장 임지영 부산대학교 교수 정인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앞선 주제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토



론을 진행한다. 송의정 부산시립박물관장은 "고고학적 성과를 다른 학문의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선사와 고대역사에 대

한 이해가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온라인 전통시장은 무료배송, 방문하면 상품권 환급

11월 2일부터 59개 시장, 5만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상품권 환급

경상남도가 30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진주 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등 도내 4개 시장에 온라인기반 입점을 지원해 8월 31일부터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는 위 4개 시장, 66개 점포, 841개 상품이 입점돼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다채로운 홍보와 기획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30일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라는 파격적인 기획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검색하면 도내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온라인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이어 도내 5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고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17개 시군 59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는 행사이며 구입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되고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도내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62곳 전통시장에서 8,342개 점포가 참여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 총 4만6,692매의 상품권을 고객에게 환급한 바 있다. 해당 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29억원 이상이며 또한 환급으로 지급된 상품권으로 2차 소비가 발생해 전통시장의 매출은 집계금액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송인용기자



경남의 매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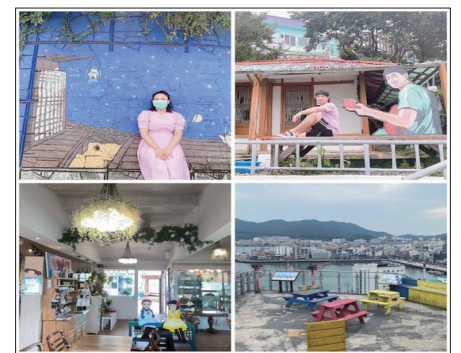
경남 여행추억 담긴 사진으로 인도네시아인의 뜨거운 관심 속 성황리 마쳐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가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심인 인도네시아 내 경남홍보를 위해 'PESONA GYEONGNAM 제1회 경남홍보 사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총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경연대회는 'PESONA GYEONGNAM'을 주제로 인도네시아인이 경남여행 중 추억에 남았던 사진과 경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사진들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수작 선정평가는 누리꾼의 호응도 50점과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평가 50점을 반영한 총 100점을 기준으로 진행해 공정성 확보에

도 노력을 기울였다. 자카르타사무소는 '제1회 경남홍보 사진 경연대회'를 계기로 매년 작품에 맞는 주제를 설정한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책자로 만들어 대 인도네시아 경남홍보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상작 12점은 경남도 자카르타사무소 전시관에 일정기간 전시할 예정이며 입상자들은 '재인니 경남도민회 및 경남 자카르타사무소 홍보단'으로 임명해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자카르타사무소는 홍보단의 수시 우수활동 등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 경남도 홍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수상한 수라바야 출신 안젤카 위탈사씨는 "평소 경남에 관심 많았는데,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로 기쁘다. 앞으로 경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경남의 관광·문화·토속음식 등 경남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업체를 몸소 운영 중인 김주철 재인니 경남도민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경연대회가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남도 자카르타사무소와 재인니 경남도민회가 더욱 협력해 경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검색하세요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 풍부
영양 풍부로 만든 빛깔 좋은 고품질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요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김영록지사, 영암서 민생현장 간담...도민소통 강화

삼호읍 중앙촌 마을주민·영암 무화과 종사자 현장 목소리 살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9일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 마을을 방문, 마을주민 및 무화과 관련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여는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등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 해 15명의 주민과 마을회관에서 대화를 가진 후, 삼호읍행정복지센터로 장소를 옮겨 10명의 무화과 종사자와 민생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상명 새마을지도자는 "도지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원한다"며 "중앙촌 마을 안길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통에 어려움이 많아 안길 확·포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의 영산호 국민 관광

지 활성화 방안 건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수변 공원 등을 연구 검토해 관광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체형 농장이나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관광객이 영산호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대중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제대회 유치 및 모터스포츠 문화 이벤트를 발굴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등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영암 민속씨름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요청하자 "영암군이 씨름단을 유지해 전라남도 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말한 후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겨 무화과 종사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삼호농협장, 영암군 친환경농업연구회장 등 무화과 산업관



련 농업인이 참여, 무화과 재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중팔 녹색무화과 대표는 원할한 무화과 유통을 위한 저온수송 차량 지원을, 박성준 농업인은 무화과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진성 친환경농업 연구회장은 무화과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잡초·동해방지를 부지포 지원 확대를, 이기정 대불

농수산조합 법인은 무화과 품질 유지를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요청, 고건 황금씨앗 대표는 무화과 분발 정제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온도가 높아진 무화과를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무화과 산업이 전남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밝혔다. 김영록/기자

재잘재잘 우리는 관산초 2학년이다

지난 28일 관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관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관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천관산 관광시장, 관산파출소, 관산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하며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음당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은 관산읍장, 총무팀장과의 대담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마다 관산읍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 냈다. "관산읍장이 뭐예요?", "관산읍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의 질문을 쏟아낸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답변을 기다렸다. 임용현 관산읍장은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계

시죠? 제가 이곳에서 교장 선생님이예요", "그리고 저처럼 관산읍장이 되려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고 학생들의 질문에 자상한 답변을 건넸다. 한 아이는 "읍장님 저희 집에는 부자가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할머니예요. 자그마치 천만원이나 있으세요"고 너스레를 떨어 모두를 한바탕 웃게 만들기도 했다. 임용현 관산읍장은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이 최고예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고르게 먹으세요. 알겠죠?"고 학생들과의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김장길/기자



해남군 "명품 해남배추로 맛있는 김장하세요"

김장철 앞두고 배추판촉 분주, 명현관 군수 서우서 김장 행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군이 명품 해남배추 판촉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해남군은 29~30일 롯데슈퍼 프리미엄 서초점에서 해남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절임배추 판촉 행사를 열었다. 명현관 해남군수, 롯데슈퍼 관계자, 향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김치 담그기 및 시식 행사와 함께 해남배추 사전예약 판매 홍보를 실시했다. 전국 롯데슈퍼 매장에서 12월 14일까지 해남절임배추를 판매하며 원하는 날짜에 배송받을 수 있는 사전 예약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 생육이 늦어진 상태로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배추가 충분히 자란 11월 15일 이후 김장을 담가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이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활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김장문화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해남 절임배추는 결국 자 잘된 해남산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

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절임배추와 함께 각종 김장재료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양영욱/기자

나주시, 이창지구 행복주택 본격 착공... 2022년 5월 준공

150억원 투입, 전용면적 21~44㎡ 총 150세대 공급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나주시 이창지구 행복주택이 첫 삽을 떴다. 나주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이창지구 행복주택'이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에 따른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혁신·일반산업단지 배후 지역인 영산포 이창동 일대에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사업 시행협약' 체결에 이어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 올해 4월 공사 발주와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이달 착공했다.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은 영산포 이창동 714-1번지 7199㎡에 세대 당 전용면적 21~44㎡, 총 150세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한다. 시는 앞서 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무상제공을 비롯해 주택부지 주변 환경개선, 대중교통 체계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LH는 국비 및 기금, 자체예산을 투입해 주택 시공과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박봉순 나주시장은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침체된 영산포권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광주시, 광주정신 담은 도시환경 만든다

역사·미래, 마을·공동체 등 10개 부문 목표 설정...정책 추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광주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은 지난날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과 자동차 위주의 거리, 환경훼손과 오염, 이웃과의 단절,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지تن 방식을 반성하고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합인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어 전문가협의체, 시민·선언문 제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안을 완성했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은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광주정신을 도시·건축에 반영하는 내용을 1개의 전문과 10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먼저 전문에는 도시·건축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새롭게 열리는 광주의 도시·건축을 통해 미래의 삶이 여유와 활력을 얻어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았다. 10개 조문은 역사와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교통과 도로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



과 공공건축 공동 주택과 주거 인프라 공공성과 도시행정 등 세부가치별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다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존중, 자연경관 보존, 보행 친화적 녹색교통 추구,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공원,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도시,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 참여와 소통의 공공건축, 열린 도시 구조,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공간, 공공성과 절차의 정의로움을 실천계획 목표로 삼았다. 광주시는 향후 '도시·건축 선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법정, 비법정 계획 수립 및 각종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뉴얼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선언문과 관련해 오는 11월 13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9개 선도프로젝트 구상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광주대표도시관'을 비롯

해 '2040 광주의 미래모습' 등의 구상안이 선보여진다. 합인선 총괄건축가는 "서울, 부산의 도시계획현장이나 건축선언과 달리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행과제, 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건축 선언'은 평화롭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편안한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역사의 시작이자 모두에 대한 약속이다"며 "새롭게 열리는 광주의 도시·건축은 삶의 여유와 활력을 만들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 걸맞은 높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경제와 환경생태로 이어져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무안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연말까지 실시

무안군은 지역상품권인 무안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월 중순 기준 470억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19년 7월 첫 발행된 무안사랑상품권은 올해 610억원을 발행했으며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는 한 달동안 128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0% 특별 할인판매 실시로 일반 판매분 증가와 더불어 각종 정책수당 상품권 지급 등으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된 상품권의 회수율은 85%로 이에 따른 사용처는 소매점 73%, 음식점 13%, 보건



업 4%, 기타 업종 10%이다. 올해 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

했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상품권 발행으로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안사랑상품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익산시, '직장인 마음터칭 온라인 칭찬캠페인' 실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사업장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마음터칭 온라인 칭찬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에 취약한 직장인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간 상호 관계증진 및 긍정적인 직장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방문 및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첫 번째 캠페인은 "내 동료를 칭찬한다"라는 주제로 직장 동료, 선·후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는 "우리 회사 행복지킴이 나를 칭찬한다"라는 주제로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장승호 센터장은 "직장인 마음터칭 온라인 칭찬캠페인을 통해 직장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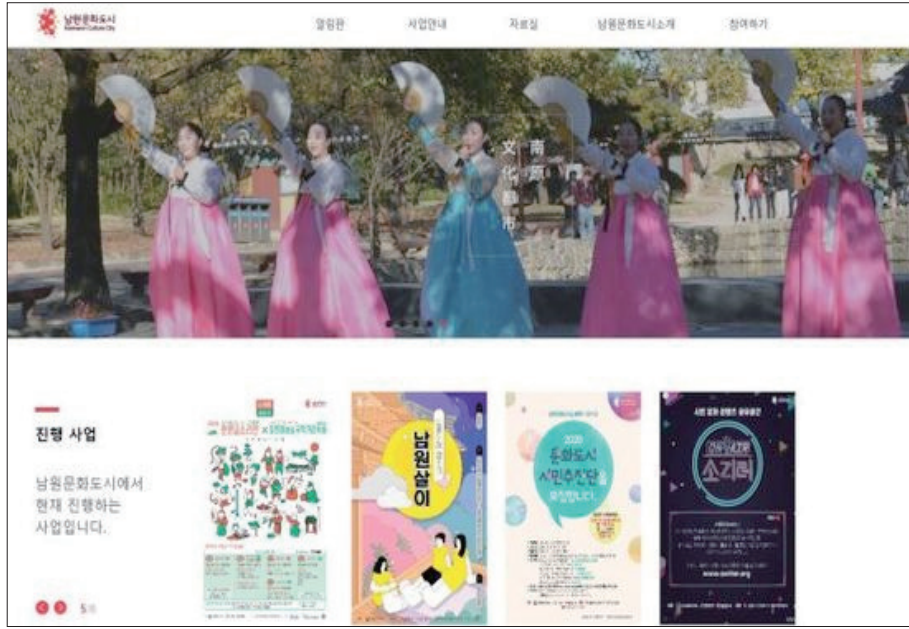
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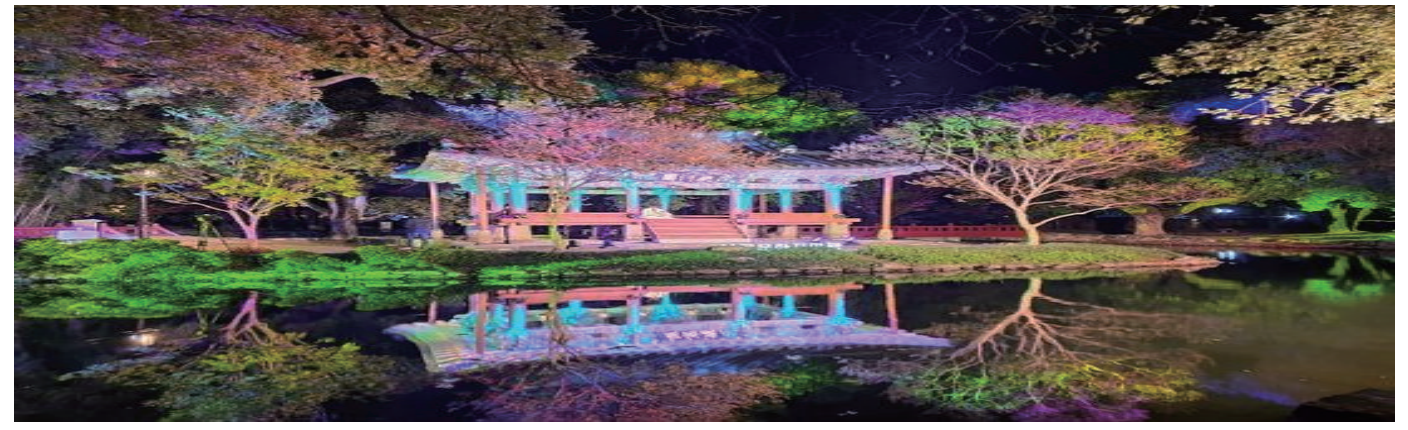
문화도시 남원

남원문화도시 공식 홈페이지 오픈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남원문화도시'라는 브랜드명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오픈한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남원문화도시의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지난 6년간 남원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걸은 길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문화도시 관계자는 "이번엔 오픈한 홈페이지를 통해 남원문화도시가 시민들께 더욱 알려지고 그로 인해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시, '2020 남원 문화재 야행' 온라인 개최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유튜브 통해 송출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10월 마지막 가을밤에 문화향유 프로그램 '2020 남원 문화재 야행 - 광한루 600년 달나라 궁전으로의 초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3일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 2주간 진행하기로 했다. 남원 문화재야행은 지난해 2020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덟 가지

의 주제를 야경·야로·야사·야화·야설·야시·야식·야숙 8야로 펼쳐 그중 코로나19로 야숙을 제외한 7야를 선보인다. 야경은 밤에 관람하는 문화재 해설프로그램으로 경관조명이 펼쳐진 광한루의 밤풍경을 관람하고 야로는 밤에 걷는 문화의 거리로 옥황상제 길놀이 퍼레이드 등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거리 곳곳에 펼쳐진다. 야사는 밤에 듣는 문화재 이야기로 남원 문화 골든벨과 달빛 아래, 남원이 야기 토크쇼가 진행되고 야화를 통해 옛 남원의 랜드마크와 문화재 및 문화시설 사진을 감상할 수 있고 야설은 문화재 감성공연으로 광한루 창건 창작 공연과 남원시립국악단이 선

보이는 우리지역 예능인들의 흥겨운 공연이 광한루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야식은 옥황상제 생일잔치를 통해 남원 특산품 및 농산물을 소개하고 남원 문화재야행에서 유일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야시를 통해 야식에 소개된 남원 농산물 꾸러미를 드라이브 스루 마켓으로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남원 문화재 야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다"며 "유튜브 채널 신설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7대 비경으로 서도역 선정

전북의 숨은 관광지

전북의 7대 비경 중 하나로 남원 서도역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제15회 전북관광 전국사진전을 추진, '전북 7대 비경'을 올해 처음 선정한 가운데, 남원 서도역이 전북 7대 비경에 포함됐다. 전북 7대 비경 중 하나로 꼽힌 남원 서도역은 1932년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폐역으로 최명희 작가 대하소설 '혼불'의 주무대이기도 하며 드라마 '미스터션사인', '간이역' 등 각종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이다. 특히 이곳은 남원시에서 선정한 '문화·관광'분야 사진촬영 10선에



도 등재 되어 있는 곳으로 각종 공연, 연주회, 남원 혼불문학 신형길 축제도 펼쳐져 여유롭게 쉬어가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혼불문학관도 있어 관광객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관광자

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서도역이 전북 7대 비경으로 꼽혀 기쁘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서도역 주변 환경정비와 불거리, 체험시설을 더 조성해서 각광받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라마 '지리산' 남원 오픈세트 촬영 시작

남원 오픈세트에서 첫 촬영 및 드라마 성공과 무사고 기원 행사

남원시가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 '지리산'이 지난 29일 남원 오픈세트장에서 첫 세트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기념해 남원시와 제작사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바람픽처스는 이날 드라마 '지리산'의 성공·무사고 기원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오픈세트장에서 첫 촬영 알리는 행사에는 남원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권경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응복 감독,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김영구 스튜디오드래곤 대표, 박오식 바람픽처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년 tvN에서 방영될 드라마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인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 삼는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미스터리물이다. 남원시는 이번 드라마 제작 지원과 관련, 지난 9월 23일 드라마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작품은 전지현, 주지훈 주연, 전 세계가 주목



한 '킹덤', 웰메이드 장르물 '시그널'을 탄생시킨 김은희 작가와 '미스터 션사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연이은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이응복 감독이 참여, 2021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드라마 '지리산' 남원 세트장은 인월 지리산 흥부골 자연휴양림 내 부지면적 15,372㎡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드라마 주 무대가 되는 해동분소와 비담대피소, 기상관측장 등이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드라마 세트장은 촬영 후 지리산권을 대표하는 산악체험 랜드마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오픈세트 첫 촬영을 기념하는 기원행사가 해동분소에서 진행됐는데, 앞으로 조성될 다른 촬영장소도 기대된다"며 "2021년 최대 기대작인 드라마 '지리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남은 일정동안 안전하게 촬영이 마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제4회 이순신 백의종군길 비대면 걷기행사 진행

남원시관광협의회에서는 제4회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비대면 걷기 행사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걷기 행사는 코로나19에도 안전한 도보여행을 할 수 있게 비대면 개별여행으로 진행한다. 이순신장군 백의종군길은 서울~전주~남원~운봉~구례~순천~통영 등 전국 총 640km로 남원 구간은 뒷밭재~남원부~이백초등학교~여원치~운봉초등학교~주천~앞밭재에 이르는 총 53.1km 구간이다. 이번 걷기코스는 여원재 옛길 구간으로 남원 이백면 양가저수지 ~ 여원치 고개까지 총 3km를 각자 자유롭게 걷는다. 여원재 옛길은 조선

시대 간선도로인 통영별로 구간으로 역사적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현장이며 남원의 지류인 요천의 한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참여 대상은 걷기를 좋아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이다. 참가신청은 남원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신청하고 본인이 사진 신청한 기간에 코스를 걸으면 된다. 걷기 완주 후에는 개인 SNS, 관광협의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 참가 완주자 전원에게는 남원시 농특산품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우수 참가자 5팀에게는 남원사랑상품권, 남원투어패스카드 등이 비대면 특별 배송된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위원장 윤영복은 "코로

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잠시나마 역사와 자연이 아름다운 옛길을 걸으면 지친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부여군,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코로나19로 올해 초부터 각종 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부여군의 가장 큰 축제인 서동연꽃 축제와 백제문화제가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완화에 따라 부여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행사가 열린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시연하는 무형문화재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내지리 단잡기', 제22호 '용정리 상여소리'와 '저산팔구 상무우사 임천보부상 공문제' 등 모두 3개다. 내지리 단잡기는 11월 6일 오전 10시 내지리 단잡기 전수교육관에서 시연된다. 단이라는 부절과 잡구 때문에 생기는 괴질이 발생하면 마을 주민이 협동·단결해 병마를 물리치고 이를 계기로 한마당 놀

이까지 펼쳐서 쌓인 감정을 정화하는 민속놀이이다. 용정리 상여소리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용정리 상여소리 전수교육관에서 시연되며 토속신앙과 백제 시대부터 유입된 유교문화가 결합된 고유의 장례풍습으로서 부여읍 용정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호상놀이에 등장하는 '상여소리'를 말한다. '호상소리'라고도 하는데, '호상'이란 복을 누리며 오래 살던 사람이 생을 마쳤음을 뜻한다.

부여읍 용정리에는 마을 고유의 독특한 '상여소리'와 '상여흐르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용정리 상여소리는 출상을 해 상황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설의 내용이 풍부한 것이 다른 상여소리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임천보부상 공문제는 부여군에서 당초 성흥산과 만세장터라는 공간적 자원과 '임천보부상'이라는 무형유산을 융·복합한 '사랑나무 거리축제'로 기획해 지역 브랜드화를 목표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당초 계획을 축소해 임천보부상 보존회원으로만 공문제제를 시연한다.

다양한 무형유산이 산재된 부여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어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목록·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여군의 소중한 무형유산들이 기록과 영상을 통해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전국 최초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수 장학생과 전승회원을 선발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무형문화재 공연이 축소 또는 취소됐지만 늦게나마 공개 시연을 통해서 소중한 무형유산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형문화재 공연 등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해 무형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당진 솔피성지 전 세계적인 천주교 명소로 부각

프란치스코 교황, 문재인 대통령 앞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축하메시지 보내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당진 솔피성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천주교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황의 메시지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기원한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도 행사 준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프란치

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며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피성지 역시 국제적 천주교 명소로 부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소방관님, 힘내세요'의랑초가 전한 감동선물

세종소방서에 직접 만든 향초, 영상편지 등 응원메시지 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한 초등 학교 학생들이 따뜻한 선물을 안겨 줬다. 세종소방서는 지난 26일 한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학생들이 손수 만든 향초와 응원메시지를 담은 마스크목걸이, 간식 등이다.

주인공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전교생 60여명이 다니는 세종 의랑초 학생들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해준 소방대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직접 향초를 만들고 마스크 목걸이에 응원 메시지를 적었으며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박스에 간식까지 담았다.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상편지까지 제작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종소방서는 의랑초 학생들의 선물로 전 직원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기특한 사연을 전했다. 안종석 소방서장은



"의랑초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은/기자

국악체험촌 오랜 기다림 끝 재개장, 새롭게 만나는 '국악의 멋과 흥'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 문화예술 체험활동 새로운 기지개

국악의 고장, 국악의 멋과 흥으로 가득한 충북 영동군 국악체험촌이 8개월만의 오랜 휴식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연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중인 국악체험촌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에 따라 11월 3일부터 부분 개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악체험촌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에 들어가 시설대관, 체험프로그램, 천고타북, 숙박 등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였다.

군은 코로나19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부분개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연장, 세미나실, 천고타북, 국악기 연주체험은 11월 3일부터 대관신청 및 현장체험 접수가 가능하다.

실내시설은 입실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되며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 및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마스크 미 착용자 및 고열자는 입실이 제한된다. 다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



는 숙박 및 난타체험은 코로나 소강상태 시 까지 잠정 중단된다.

국악기 연주체험은 현악기 체험과 타악기 체험으로 운영하되, 인실 인원을 제한하고 비말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호흡과 함성을 금지한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북 '천고' 도 타북체험이 재개된다.

지난 9월말 10년 만에 가족교체 등 전면 개보수를 완료해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체험객을 맞을 예정이다. 군은 체험객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각별한 방역조

치를 취한 후, 국악체험촌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코로나블랙 등의 신조어처럼 코로나로 전 국민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감만족의 국악체험과 울림이 하늘에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천고타북으로 작은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할지라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체험객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현대제철 해피프리즘 봉사단, 삼선산수목원 가꾸기 참여

현대제철 해피프리즘 가족봉사단이 삼선산수목원에 맥문동 1만본 식재

현대제철 해피프리즘 가족봉사단이 삼선산수목원 가꾸기에 참여한다. 오는 31일 현대제철 직원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해 삼선산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일원에 맥문동 1만본을 식재하고 환경개선활동을 펼친다.

한국의 라벤더라고도 불리는 맥문동은 6-9월 보라색꽃이 피는 여러해살이 풀이며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여름철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해피프리즘 봉사단은 2013년 창단된 이후 꾸준히 당진 내 환경정화 활동을 참여해왔다. 특히 삼선산수목원에서 2017년에 마가렛 3,000본, 수선화 1,000본 식재 활동을 벌였고 2018년에는 석산 1만본을 식재하는 등 꾸준히 '수목원 가꾸기' 활동에 동참해왔다. 임은빈 당



진시 공원관리팀장은 "해피프리즘을 비롯한 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환경보호와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수목원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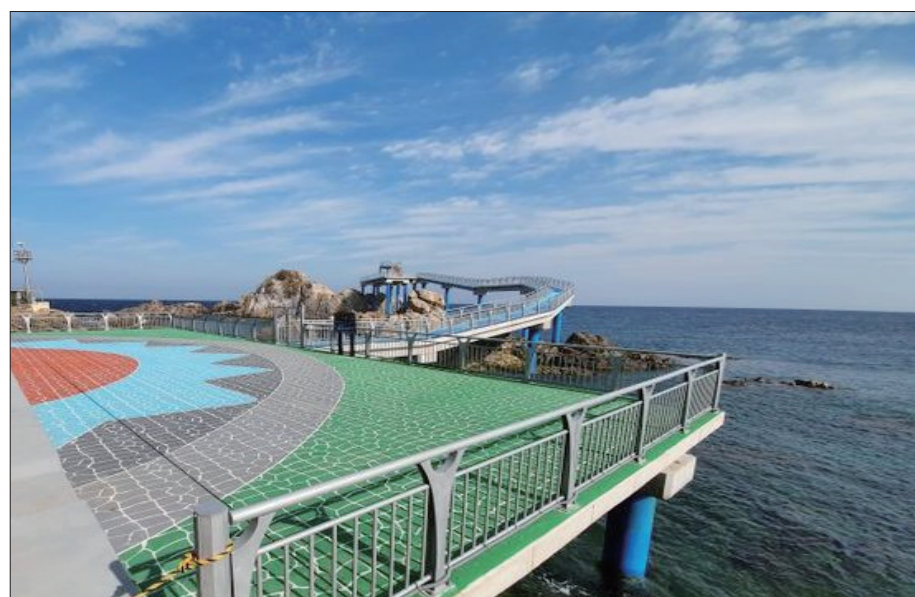
기를 희망한다"며 "식물을 심는 활동이 끝이 아닌 심은 후에도 유지 관리가 되는 지속적인 녹화 활동과 꾸준한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고성군, 거진항 백섬경관 해상데크 조성 완료

고성군이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백섬경관 해상데크 조성을 완료하고 3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체류형 해양관광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억여 원을 투입해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백섬 경관 해상데크 조성사업은 어촌체험촌과 백섬 연계 산책로 포토존 및 소공원, 조망시설 조성 등이 주 사업내용이다. 이번에 조성한 '백섬 경관 해상데크'는 24억여 원을 투입해, 2019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20일에 걸쳐 총길이 137m, 폭 2.5m, 높이 4~25m 규모로 건립했다. 고성군은 구조 장비 및 이용객 안내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10월 29일 군수, 부군수, 거진어촌계장,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전 최종 안전 점검을 마쳤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섬 경관 해상데크와, 해수욕장과 투명카누, 스노클링 등 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거진항 일대 어촌 신성장 동력 확보와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함명준 군수는 "천혜의 경관

을 자랑하는 등대공원과 거진항, 백섬을 아우르는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해양레저관광 시설물과 통합 콘텐츠를 개발·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영/기자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충북 괴산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최낙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괴산경찰서 충북하나센터, 청주고용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괴산군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 괴산군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회 괴산군지구협의회 등 관련 기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탈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각 기관·단체의 우수 사례 공유 기관·단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낙현 부군수는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들이 괴산군에 성

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김제시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씨 심폐소생술로 금산사 방문객 생명 구해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씨가 금산사를 방문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모씨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경 금산사 사천왕문 주차장에서 정을 여래사 권대법성보살 스님과 같이 금산사를 방문한 이모씨가 차 안에서 갑자기 실신하자 근무 중인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씨가 발견해 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끌어내려 5~6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 한 후 호흡이 돌아오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게 인계해 환자는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됐고 10월 8일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마쳤다고 전해진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정덕씨는 "평소 교육기관에서 실습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김제시청 직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하며 "환자가 의식을 되찾

았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무안군 배운옥 청소년지원팀장, '제3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수상 영예

무안군은 지난 29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공공복지대상'에 배운옥 청소년지원팀장이 공공복지 증진 유공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복지대상은 전국 2만 8000여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상금은 200만원이다. 이번 수상은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공복지 행정 실천을 비롯한 창의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팀장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한 홍보와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을 통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레저스포츠 캠프를 실시했다.

또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무안병원, 롯데아울렛 등과 협약을 통해 장학금, 컴퓨터, 도서지원 등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 심리치료, 정서지원, 건강검진, 각종 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무안군 우수시책 252개 제안 중 서면평가 16위, 우수시책 30선에 들어 주민참여형 군정평가 우수시책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시상금 1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등에 기부하는 등 다문화·장애인 가정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5~2016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2017 드림스타트사업 보고대회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개소한 이래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의회원들의 사회복지의식과 활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사회복지의 일선 서비스 업무에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위상정립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조기식/기자



충북공고 전기과 1학년 학생,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잡아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기과 1학년 이도형 학생이다. 이도형 학생은 지난 10월 19일 오후 죽림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해 있던 차를 부딪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학생은 이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달려가서 차를 따라가 차주를 불러 세웠고 피해자 차주 및 경찰에게 전화를 해 적절한 피해보상 절차를 밟게 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 차주는 "이 군이 없었다면 가해 차량을 알지도 못하고 더욱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이 군의 용기, 그리고 이 군과 같이 인성이 올바른 학생을 길러내고 있는 충북공업고등학교에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도형 학생의 용기에 고마움을 느낀 피해 차주는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군의 학급 학생들에게 간식도 제공했다. 이도형 학생은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가해자 도주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끝까지 달려가 잡았다"며 "피해 차주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거 같아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은/기자

'한국4-H대상' 청년 부문 대상 지준호 씨

제22회 한국4-H대상 서산 지준호 씨-예산 예화여고 수상 영예

제22회 한국4-H대상에서 충청남도4-H연합회 지준호 씨가 청년4-H 회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세계4-H의 날을 맞아 서울 4-H회관에서 열린 제22회 한국4-H대상에서 지준호 씨가 청년4-H회원 부문에서 대상을, 예산 예화여고고등학교가 학교4-H 회원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4-H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펼치는 학교와 청년, 지도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지준호 씨는 "2011년부터 4-H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농



촌은 어려운 곳이 아닌 미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충남 농업과 4-H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범이 되는 농업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미래 농

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농업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해 청년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체부 장관상' 수상

제1호 그림책도서관, 그림책 특화 문화서비스 제공 성과 인정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이 지난 2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20 전국도서관 운영평가'공공도서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등 1만 5271개의 전국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평가이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5개 종류 2,309관을 대상으로 1차 정량·정성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도서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5개의 우수도서관이 선정됐다.

순천그림책도서관은 제1호 그림책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시를 추진하고 그림동화, 인형극 공연, 그림책 밥소풍 등 그림책으로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초·중·고·대학생부터 주부, 상인, 한글작문 수강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그림책을 제작하고 전시해 창작공간으로서 새로운 도서관 역할을 모색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림책도서관은 미술관의 기능뿐

만 아니라 국내외 그림책 자료가 풍부한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12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어머님의 뜻을 받든 8남매의 소중한 아립1004 기부

故 정을순 할머니의 유언

지난 30일故 정을순 할머니의 자녀 8남매가 아립1004 후원금으로 1,004만원을 거창군에 기부했다.

故 정을순 할머니는 남하면 무릉이 고향이며 96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4가지 유언을 했다고 한다. 첫째 내가 살아온 거창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것, 둘째 집안 중친들

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것, 셋째 친인척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 것, 넷째 내가 살아온 집을 수리해 그곳에서 자녀들이 자주 모여 우애와 화목을 다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8남매는 어머니의 유언 중 '거창을 위한 좋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거창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운동인 아립1004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8남매 모두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1천4만원에 기부하게 됐다고

한다. 기부식에는 8남매 중 형남태·남옥·남중·양자 4남매가 참석해 어머니의 유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언을 남기신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그러한 어머니의 소중한 뜻을 한마음으로 따른 8남매도 정말 훌륭하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길이 가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라디오스타’ 나연→쯔위 트와이스 8인 총출동, 데뷔

‘아이 캔트 스톱 미’ 칼군무X고혹미 장전 신곡 무대까지

트와이스가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준다’는 그룹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데뷔 후 단체로 처음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예능감을 펼쳤다.

180도 허리가 돌아가는 신개념 개인기부터 트와이스 활동에 담긴 진심, 멤버들간 찐친 귀여운 관계성까지 아낌없이 보여줬다.

지난 28일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데뷔곡 ‘우아하게’를 시작으로 최근 발매한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까지 14곡 연속 히트 행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와 함께한 ‘트와이스 타’ 특집으로 꾸며졌다.

‘트와이스 타’ 특집은 5년째 최정상 자리를 지키는 트와이스와 멤버 각각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오른 예능감과 신개념 개인기는 시청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고 오랜 활동으로 돈독해진 멤버들의 관계성은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특히 ‘아이 캔트 스톱 미’ 신곡 무대가 최초 공개되며 무한 매력에 방점을 찍었다. 예능과 다재 다능함을 보여준 건 다현이었다.

다현은 “김구라 선배 같은 시아버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김구라를 광대 승천하게 만들었다. 또 안영미와 함께 ‘셀럽이 되고

싶어’ 무대로 무표정에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가 하면 180도 허리가 돌아가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연체 인간 개인기를 더하며 제대로 예능신이 강립한 모습을 보였다. 사나와 모모는 앞서 출연에서 ‘부부의 세계’ 개인기로 대박을 터트린 박진영을 폭로했다. ‘부부의 세계’ 성대모사에 웃으니까 하루에 20번 개인기를 하신다”며 입담꾼의 재능을 활짝 펼쳤다. 이에 채영 역시 앙칼진 표정을 짓는 여다경 개인기에 도전했고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멘붕 사태를 부른 실수 비화도 대방출 됐다. 나연은 공연 도중 긴장한 기억을 떠올리며 “앙코르 무대 때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 ‘멘탈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눈물이 났다”고 잊지 못할 실수를 떠올렸다. 사나와 모모는 바쁜 일정 탓에 ‘CHEER UP’ 무대 위에서 조는 장면이 포착됐던 비화를 공개하기도. 미나는 “데뷔 때부터 아련한 파트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아련 연기 장인의 면모를 뽑내다가 하면 번개와 천둥 치는 것을 좋아해 자기 전 번개 영상과 천둥소리를 찾아 듣는다고 털어놓아 시선을 끌었다. 쯔위는 ‘잔반 처리반’ 반전 매력에 언급하며 “엄마를 따라 생긴 절약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엄마와 똑 닮은 쯔위의 모전여전 인형미모 사진이 공개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모모는 “아버지 지효의 팬”



이라며 “본가의 아빠 방이 지효 사진으로 도배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 공개되자 지효는 “저희 집조차 저렇게 안 돼 있다”며 미소 지었다. 지효는 일본에서 멤버 개인별로 줄 서서 만나는 하이터치회가 열렸을 때 딸이 아닌 자신을 만나러 온 모모의 아버지를 보며 놀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찐 친’ 폭로전도 이어졌다. 결혼 등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트와이스. 채영은 결혼을 늦게 할 것 멤버로 나연을 꼽으며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다. 나연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나연은 일찍 할 것 같은 멤버로 채영을 꼽으며 “절차를 생각하고 청첩장을 줄 것 같다”고 덧붙여 폭소를 유발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스타’가 특별히 준비한 무대 위에 오른 트와이스는 각 군무와 카리스마, 고혹美로 무대를 찢었다. 트와이스의 매력과 포인트를 안무를 귀신같이 캐치한 ‘라스’표 트와이스 무대는 트와이스 컴백을 기다린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트와이스 예쁘고 귀여워서 웃음 끊이지 않고 재미있게 봤네요” “트와이스 신곡 무대 정말 대박이네요” “오늘 멤버들 모두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데프콘 MC 잘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주 ‘라디오스타’는 밴드 백두산 유현상, 크라이닉 한경록, 박재범, 래퍼 Ph-1과 함께하는 ‘시간을 달리는 뮤지션’ 특집이 예고됐다.

전소희기자

11월, 보은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온라인 연극공연

11월 2일 11월 24일 온라인으로 연극 보세요~

보은군은 보은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극단 놀품”에서 11월 2편의 연극공연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는 “우국이세 훈민정음”, 11월 24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는 “후설”을 공연한다. 11월 2일 공연하는 “우국이세 훈민정음”은 2019년 보은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창작조연된 작품으로 연극과 음악, 안무가 집대성된 총체연극으로 “극단 놀품”과 보은군 예술단체와의 협업

으로 진행된다. 11월 24일 공연예정인 “후설”은 창작조연으로 조선 정조 승정원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구성한 작품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결정했으며 지역에서 공연되는 만큼 많은 지역 주민이 시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극공연은 유튜브 채널에서 “극단 놀품”을 검색해 공연시간에 시청할 수 있으며 11월 2일 우국이세 훈민정음은 2일 오후 3시 실시간 송출되며 4일부터 11일까지 편집영상을 송출해 기간 중 시청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광명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날 10월 프로그램 ‘생생광명’ 진행

10월 31일(토) 광명시민회관 일대에서 광명시 생활문화동아리 30여개 팀 참여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철빈)은 경기도와 ‘2020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월 프로그램 ‘생생광명’은 오는 10월 30일(토)에 광명시민회관 일대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생생광명’은 광명 시민의 코로나19 우울감 해소와 광명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기획되었다. 8월부터 총 4회에 걸쳐 ▲8월 ‘안녕광명’, ▲9월 ‘남만광명’, ▲10월 ‘생생광명’, ▲11월 ‘힐링광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생생광명’은 광명생활문화동아리들의 ▲공연, ▲전시, ▲체험과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동아리들의 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전문 공연단의 공연으로 프로그램의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생생광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체제를 엄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 경기도 문화의 날’ 4개 프로그램 ▲8월 ‘안녕광명’, ▲9월 ‘남만광명’, ▲10월 ‘생생광명’, ▲11월 ‘힐링광명’ 참여 후 SNS에 인증글을 업로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 배지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m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문의는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2-2621-8829로 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안성맞춤아트홀 상주단체 ‘어쿠스틱앙상블 재비’ 공연 한가득

11월 다채로운 창작국악 3편 공연

안성맞춤아트홀은 상주단체 ‘어쿠스틱앙상블 재비’의 다채로운 창작국악공연 3편을 기획해 11월 공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된 창작국악공연 3편은 ‘가을맞춤 재비콘서트’, ‘안성으로 온 재비’ 그리고 ‘재비의 안성 유희기’이다. 가을맞춤 재비콘서트

안성 시민과의 첫 인사는 11월 3일 낮 3시에 안성맞춤아트홀 야외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을맞춤 재비콘서트’다. 가을 정서에 맞는 재비의 곡들을 추려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외 공연으로 진행되며 안성맞춤아트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는 온라인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청춘 - 안성으로 온 재비 11월 20일 저녁 7시 30분 안성맞

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청춘’이라는 큰 그림 아래 8인의 연주자 각자가 메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곡들로 펼쳐진다.

국악공연은 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역동적인 움직임과 호흡이 살아있는 군무, 파격적인 구성과 화려한 연출로 청춘의 꿈과 끼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유일무이한 국악계의 아이콘 ‘남상일’, 그리고 상상차, 흥연 등으로 알려진 사극 발라드 여신 ‘안예은’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재비의 안성 유희기

재비가 바라본 안성 이야기와 국악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재비가 안성 8경을 직접 여행하며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음악으로 꾸며진다.

안성 8경의 경관을 영상에 담아 음악과 풍경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융합

예술 공연으로 안성 8경에 대한 간접 경험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남주기자



전통민속예술의 흥겨운 한마당 ‘찾아가는 문화재’ 개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전통민속예술이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부산역 광장과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전통민속예술공연 한마당 ‘2020 찾아가는 문화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접하기 힘든 전통민속예술공연의 해학과 흥을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공원에 민속예술 공연단이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공연 일정은 10월 31일 11월 8일 11월 14일 오후 1시~오후 4시 11월 21일 오후 1시~오후 3시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등 부산시 소재 무형문화재 16종목이 참여해, 종별별로 가장 재미있고 흥겨운 부분을 공연한다. 10월 31일 첫 회 행사가 진행되는 부산역 광장에서는 동래지신밟기, 동래야류, 동래고무, 동래한량춤, 동래학춤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전통예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을 1, 2부로 나눠 진행하고 중간에 현장 방역을 하는 등 관객과 공연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인

2020 찾아가는 문화재
전통민속예술공연 한마당

부산역 광장
2020. 10. 31.(토) 13:00 ~
2020. 11. 8.(일) 13:00 ~
2020. 11. 14.(토) 13:00 ~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2020. 11. 21.(토) 13:00 ~

주관 (사)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와,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경영기자

의왕바라산자연휴양림, 비대면 숲 프로그램 운영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특색 가을여행을 떠나요

의왕도시공사는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산림서비스로 비대면 숲 프로그램인 ‘바라산 특색 가을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이용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비대면 숲 프로그램으로 휴양림 체코인사무소에 비치된 비대면 숲 프로그램 지도를 소지한 후 QR코드 해당 지점에서 모바일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해 동영상 재생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바라산의 사방댐, 계곡쉼터, 갈림길, 잣나무 생

태학승장, 데크계단,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동영상 통해 숲 해설과 숲 놀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는 목공예, 유아숲, 산림치유, 숲해설 등의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희망자는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휴양림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바라산휴양림의 아름다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QR코드 숲 프로그램 운영
운영시간: 2020.10.26.(월)

사용 시도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해주세요

QR코드 지도는 휴양림 매표소에 있습니다

박상진기자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

'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4종 제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수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고, 금년 7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청해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그린수소 생산 전문가인 "ITM파워"의 닉 하트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그린수소의 생산규모 증대와 생산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성능 및 안전 요건 등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스티브 매티슨 프로젝트 리더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표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시간 단축 기술, 차량과 충전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충전 프로토콜 등의 기술 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프랑스 "신에너지기술연구소"의 매니저이자 "IEC TC105" 의장인 로랑 안토니는 유럽의 수소 전략과 수소기술 규정 등을 설명하고 수소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표준화기구 간 협력해 수소기술 규정과 표준화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충전소, 충전소 부품 등 수소경제 안전기준과 국가표준화 작업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포럼에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등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아울러 금번 포럼

에 참석한 국가들과 협력해 '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동식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준 4종을 개발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은 저탄소 수소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소기술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수소경제 조 기 이행과 성공적인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창흥기계(주),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투자

2024년까지 45억원 투자, 24명 근로자 채용 예정

농기계 전문업체인 한국창흥기계(주)가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9일 조경익 대표,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창흥기계(주)는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1만9천362㎡ 부지에 45억원을 투자해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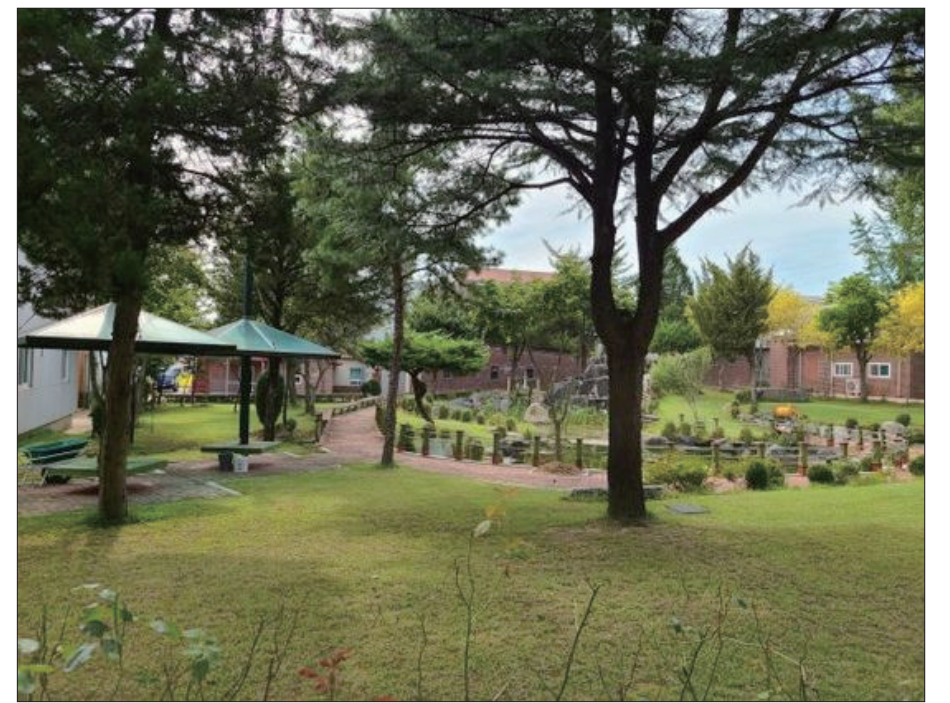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가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창흥기계(주)는 1993년 고려산업기계로 시작

해 '중국 저장창흥기계'에서 투자한 외투기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트랙터 등 농기계 및 산업용 연동장치인 프로펠러사프트를 제조하는 전문업체이다.

양질의 제품 국산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창흥기계(주)는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제3산단 외투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유희숙 부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국내 지자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인 익산 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 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의성군, 2021년 그린뉴딜·녹색자금 공모사업 3건 선정



의성군이 2021년 '그린뉴딜' 사업과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3건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그린뉴딜 사업 중 생활 밀착형 숲과 자녀 안심 그린 숲 사업, 그리고 녹색자금 공모사업인 복지시설 나눔 숲 사업에 선정됐으며 특히 자녀안심 그린 숲 사업은 경상북도 내에서 의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숲 총 5억원, 자녀안심 그린 숲 총 2억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사업에 1억원 내외를 투자하게 된다.

군은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의성을 일원에 실의 정원을 조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 친환경적인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복지시설 나눔 숲 사업을 통해서도 요양원내 힐링 공간을 만들어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실내 정원 조성사업과 옥상 그린 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명호기자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15개사 모집, 다음달 12일까지 지원

충남도는 오는 12월 15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도내 15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된 해외 현지 마케팅 사업을 대체하고 중국,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천안에서 열린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상담회는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진행하며 비대면 수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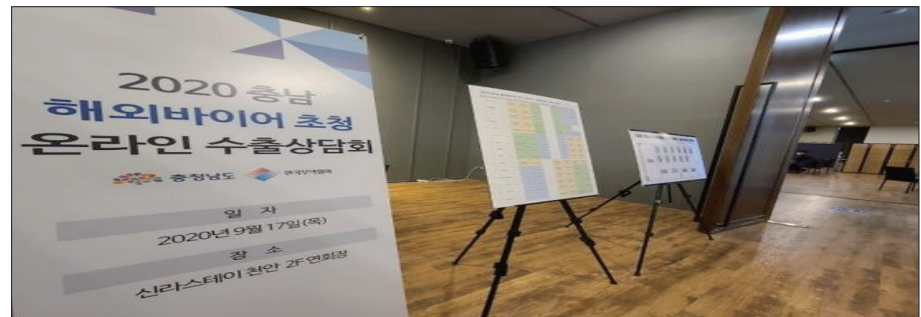
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국내외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바이어와의 화상 수출 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샘플의 해외배송, 전문통역 지원 등 비대면 화상 상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지난 1차 상담회에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상담액이 1000만달러가 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보령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172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의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